관계빈곤과 손절사회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관계는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일상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을 나누면서 교류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은 부족하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아도 관계에서는 가난할 수 있다. 이를 '관계빈곤'이라 부른다.

최근 '손절사회'라는 표현이 주목받는다. 손절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중단한다는 경제적 용어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손익을 따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 쉽게 관계를 끊는 손절 현상을 보여준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절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을 대화로 풀기보다 상대방의 '효용'을 기준으로 관계를 평가하는 태도가 확산되는 데 있다.

이는 개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와 효율,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가치가 인간관계에도 스며든 결과다. 만남조차 자신의 성장이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하면, 관계는 상호 존중의 기반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에바 일루즈의 '감정 자본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이 친밀한 관계에까지 작용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관계의 격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인간관계는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정보와 일자리, 사회적 기회를 얻는 통로다. 피에르 부르디외가 설명한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관계망에서 형성되는 자원이다. 관계망이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관계망이 좁은 사람은 기회에서도 배제될 위험이 있다. 관계빈곤은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각종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서 국민의 38.2%는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평소 교류하는 사람도 없는 비율은 5.8%,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율은 3.3%였다. 6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4.5%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제 관계빈곤은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은 고용·주거 불안, 중장년은 실직과 퇴직, 노년은 사별과 건강 악화로 관계망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개인의 성격이나 사교성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생애주기와 환경에 따른 관계 단절의 원인을 살피고 사회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적 복지(Relational Welfare)'는 복지를 소득과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와 상호의존, 공동체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 접근이다.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은 단적인 예로 외로움과 고립을 겪는 사람을 지역 동아리, 문화활동, 자원봉사와 주민모임 등에 연결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참여를 돕는다.

관계는 서비스처럼 제공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될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사회의 책무다. 복지관과 주민센터, 도서관 등은 주민이 만나 일상을 나누는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신뢰를 쌓고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해야 한다. 주민을 수동적인 타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공동체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관계빈곤에 대응하는 일은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을 이익과 효용으로 평가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끊어내는 손절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곁에 두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우리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품격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손절이 일상이 된 사회를 넘어 누구도 관계에서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손익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과 연대의 출발점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정답 주는 AI, 학생의 '헤매는 시간'을 뺏는다



기자 수첩
김 수 정
〈유통&라이프부〉

문제를 풀다 막히면 인공지능(AI)에 묻는다. 단 몇 초 만에 풀이와 정답이 나온다. 요즘 학생들에게 익숙한 공부법이다. 교육 현장의 AI 도입을 취재하다 보면 효율과 맞춤형 학습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때마다 걸리는 질문이 있다. 학생이 헤매는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AI가 공부의 지름길인지는 명확한 답이 없다. 다만 불편한 연구 결과는 나와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은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GPT-4 기반의 학습용 AI를 제한 없이 쓴 학생들은 AI를 쓰지 않은 학생보다 48%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AI 없이 치른 시험에서는 17% 낮은 점수를 받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학생들의 인식이다. AI를 제한 없이 쓴 학생들은 시험 결과가 나빴는데도 다른 학생들만큼 '배웠다'고 느꼈다. 정답을 쉽게 얻을수록 이해했다고 착각하기도 쉬웠다.

학습은 본래 불편한 과정이다. 풀이가 막히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쌓여야 개념이 남는다. 정답을 즉시 건네는 AI는 이 시간을 건너뛰게 한다. 성적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과정이 사라지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는 힘도 약해질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해법의 실마리도 보인다. 정답 대신 단계별 학습 과정을 안내하도록 AI를 설계했을 때, 학생들의 성적은 127% 올랐다. AI 없이 본 시험에서는 AI를 쓰지 않은 학생과 비슷한 성적을 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한계는 남지만, AI가 문제인지 아닌지보다 어떻게 설계하고 쓰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떤가. 교육청마다 AI 활용 교육과 평가 지원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학생이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할지, 기준은 뚜렷하지 않다. 이미 학생들은 AI 친화적인 환경에 적응했다. '쓰게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학습 단계별 활용 지침이 필요하다.

AI는 앞으로 더 빠르게 정답을 내놓을 것이다. 교육이 지켜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닌 정답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생에게 헤맬 시간을 돌려주는 일, AI 시대 교육이 풀어야 할 숙제다.

/kcrystal@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4일 (음 9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조급해 하지말고 우직하게 기다려 보세요. **60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여행은 다음달로 미루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84년생**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 **49년생** 먼저 정한 바를 고집하세요. **61년생**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73년생** 근신자중의 날입니다. **85년생** 욕구를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조금만 더 기다림이 좋을 듯 합니다. **62년생** 평생의 숙원이 목전에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86년생** 심신이 고달픈 일이 생깁니다.

토끼 **51년생** 아랫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63년생** 가까운 친한 인척을 돌아 보세요. **75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곧 나가게 됩니다. **87년생** 지난친 의탁이나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용 **52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64년생**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76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88년생** 당신을 신뢰하는 이가 더 많으니 좌절하지 마세요.

뱀 **53년생** 일찍 귀가하세요. 자칫 불편한 일에 엮일 수 있습니다. **65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77년생** 현실적인 소망을 먼저 이루도록 하세요. **89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말 **54년생**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66년생** 현실을 직시하세요. **78년생** 상대방은 마음에 없는데 본인 몸만 달았습니다. **90년생**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집니다.

양 **55년생** 인간관계를 잘 맺으세요. **67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79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됩니다. **91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원숭이 **56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68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80년생** 그동안 심고 가꾼 곡식이 알찬 열매를 보게 됩니다. **92년생** 주위의 유혹이 많은 날입니다.

닭 **57년생**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69년생** 여유 있게 대하세요. **81년생** 지나친 과민반응이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93년생** 젊은 날의 쾌락은 잠시뿐임을 잊지 마세요.

개 **58년생** 모든일이 잘 풀립니다. **70년생** 소원이 성취되기 힘듭니다. **82년생**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94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71년생** 다른 이를 신경쓰지 마시고 소신껏 행동하세요. **83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95년생** 시험운이 좋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소멸시효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는 제도이다. 실생활에 훨씬 밀접한 제도는 잘 모르는데 그것은 소멸시효다.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었어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법의 힘으로도 되찾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소멸시효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적용되고 있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내야 하는 음식값도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병원 치료비, 일하고 받는 임금 같은 일상의 거의 모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이든 똑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일까. 공소시효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듯 소멸시효도 어떤 권리냐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식당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먹었다면 식당 사장님은 1년 이내에 음식값을 청구해야 한다. 음식값이나 숙박료 입장료 같은 일상적인 소비 채권은 대부분 1년이라는 시효를 갖는다. 병원비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상업적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이다.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은 금전에 관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 물론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간대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나 거래의 변수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의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언젠가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법이지만, 법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자기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5		
				5	4			
3								9
	4		5		1			3
9	3						5	1
1			6		8		4	
7								2
			9	1				
		9		8	2	6		

	6	5	8	2		3		
			5			7		
8								9
				7	4		6	
	9		6		1		2	
	7		3	5				
6								4
		9			8			
		4		1	2	8	9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3	6	2	8	7	9	1	5
5	8	7	1	3	9	4	6	2
2	9	1	5	6	4	3	8	7
7	4	9	8	3	6	5	2	1
1	5	8	7	4	2	6	3	9
9	6	2	3	9	5	1	7	8
3	7	5	4	2	1	8	9	6
6	1	5	9	2	3	7	4	8
8	2	4	6	7	5	3	9	1

6	9	8	2	1	7	4	3	5
5	3	2	8	6	4	9	1	7
4	7	1	5	9	3	6	8	2
8	1	4	9	5	6	3	7	2
7	2	6	3	8	9	5	4	1
9	6	5	4	7	2	8	1	3
3	4	7	6	9	5	1	2	8
2	8	9	7	4	1	5	6	3
1	5	3	2	8	9	7	4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